은행

Sector Issue Brief 2026. 05. 04

1Q26 실적 체크포인트: 이익안정성 재확인. 2Q 기대치 상향

Check Point

- 탑라인 개선으로 1Q 실적 견조
- 2Q 에도 긍정적 업황 전망
- 주가상승 모멘텀 축적 구간. 외국인 매도세 지속 완화 기대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핵심이익(이자+수수료) 개선으로 이익안정성 재확인

▶ 26년 1분기 실적발표를 마친 8개 은행(지주) 합산순이익은 6.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 회사별 실적은 대체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주요 대형 은행지주는 사상최대 분기이익 시현. NIM 상승에 힘입어 합산 이자이익이 4.8% 증가했고, 증권자회사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수수료이익이 급증하며 탑라인 성장이 이익개선을 견인. 유가증권 및 외환 관련 손실인식으로 기타 비이자이익은 감소

▶ 비용 측면에서는 퇴직비용 인식과 교육세 부담으로 판관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8.4% yoy). 합산 대손비용은 전년동기대비 4% 감소했지만, 일부 회사는 추가충당금 인식과 전년동기 환입 등 기저효과 영향으로 대손부담이 증가. 전반적으로 자산건전성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NPL 규모가 확대되며 공통적으로 커버리지 비율이 하락

▶ 자산재평가로 보통주자본비율이 크게 상승한 우리금융을 제외하면 환율상승 영향으로 대형 은행지주 CET1비율은 평균 20bp 하락했음. 신한지주가 새로운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주주환원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분기배당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3대 금융지주의 DPS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

2Q에도 탑라인 성장세 지속. 충당금 수준이 관건이나 실적 기대치는 높게 가져가도 될 것

▶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있고, 우려와 달리 증시로의 머니무브에도 낮은 대출성장률로 인해(4대은행 1Q 평균: +0.9%) 조달비용이 낮게 유지되면서 2분기에도 NIM 방향성은 긍정적. 우호적 자본시장 환경으로 2Q에도 수수료이익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율 및 금리안정으로 1분기 부진했던 기타비이자이익 또한 회복이 가능할 전망. 보험관련 손익 또한 1분기 대비 2분기 계절적 반등이 예상됨

▶ 2분기 실적의 변수는 대손비용이 될 것으로 보임. 전쟁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낮아진 커버리지비율 관리를 위한 추가 충당금 적립, NPL 상매각 확대로 인한 처분손익 발생 등 이익변동성 요인이 예상되기 때문. 다만 상승한 NPL비율과 달리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안정적이고 요주의이하 대비 커버리지비율 또한 하락 폭이 크지 않은데다, 연체율 수준 또한 대체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의 전면적 악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높게 가져가도 될 것으로 예상

▶ 환율안정과 함께 생산적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완화조치로 2분기 은행권 CET1비율은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이 예상됨. 대형 은행지주들은 자본규제 완화조치로만 20bp 내외의 CET1비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음. 1분기에 이어 높은 DPS 증가율이 예상되고, 하반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 또한 예정되어 있음

실적 대비 주가 부진했으나 모멘텀 축적 구간. 비중확대 의견 유지

▶ 호실적에도 은행주 주가는 시장대비 부진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음. 주도업종 대비 이익증가율이 높지 않고 신규 주주환원 조치 부재의 영향으로 해석. 하지만 연초 이후 지속되던 외국인 매도세는 전반적으로 1Q 실적시즌을 기점으로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긍정적 이익전망과 주주환원 확대기조를 고려하면 현재는 주가 반등 모멘텀이 축적되는 구간으로 판단. 대외여건 개선시 탄력적 주가회복을 예상하며 은행업종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함

표1 은행지주 순이익

(단위:십억원)	'25.1Q	'25.2Q	'25.3Q	'25.4Q	2025 연간	'26.1Q(P)	YoY(%)	QoQ(%)
KB	1,697	1,738	1,686	721	5,843	1,892	*11.5*	*162.4*
신한	1,488	1,549	1,424	511	4,972	1,623	*9.0*	*217.8*
하나	1,128	1,173	1,132	569	4,003	1,210	*7.3*	*112.5*
우리	617	935	1,244	328	3,124	604	*-2.1*	*83.9*
기업	809	693	747	462	2,711	749	*-7.4*	*61.9*
JB	163	208	208	132	710	166	*2.1*	*26.2*
BNK	167	309	294	45	815	211	*26.9*	*369.7*
iM	154	155	122	12	444	155	*0.1*	*1,166.9*
합계	6,222	6,761	6,857	2,781	22,622	6,610	*6.2*	*1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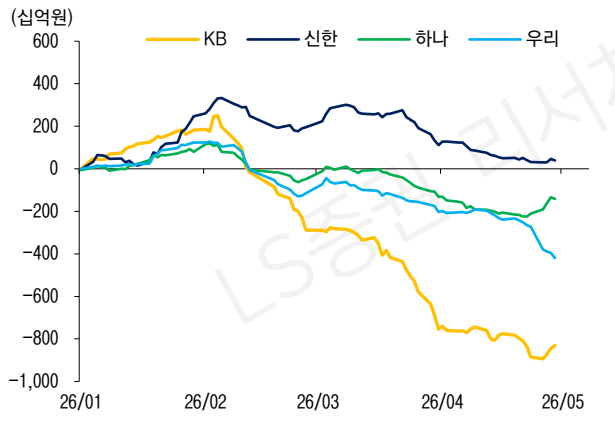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표2 은행지주 합산실적 추이

(단위:십억원)	2025		2026E			2025연간	2026연간E
	1Q	4Q	1QE	YoY(%)	QoQ(%)		
총영업이익	17,917	17,431	19,124	*6.7%*	*9.7%*	72,045	76,465
순이자수익	14,193	14,804	14,877	*4.8%*	*0.5%*	57,365	61,250
순수수료수익	2,981	3,340	3,922	*31.6%*	*17.4%*	12,783	14,385
기타비이자이익	743	-714	326	*-56.2%*	-	1,897	830
판관비	7,041	8,840	7,632	*8.4%*	*-13.7%*	30,232	31,547
충전영업이익	10,875	8,591	11,492	*5.7%*	*33.8%*	41,813	44,918
대손비용	2,623	3,116	2,518	*-4.0%*	*-19.2%*	11,139	11,212
영업이익	8,252	5,475	8,975	*8.8%*	*63.9%*	30,674	33,706
영업외손익	162	-988	120	*-26.2%*	-	306	150
세전이익	8,414	4,486	9,094	*8.1%*	*102.7%*	30,980	33,857
법인세	2,093	1,620	2,359	*12.7%*	*45.6%*	8,039	9,085
지배주주순이익	6,222	2,781	6,610	*6.2%*	*137.7%*	22,622	24,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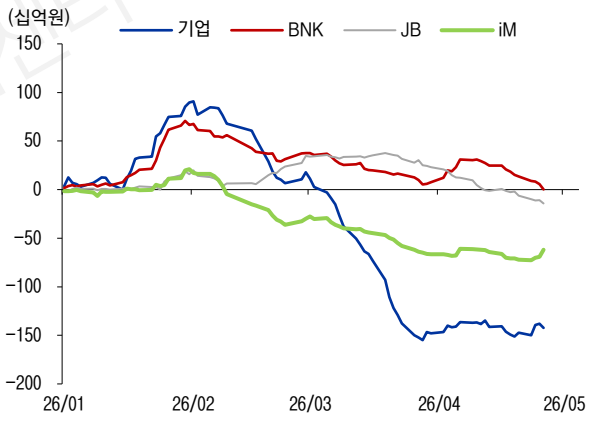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26 년 연초 이후 시중은행 외국인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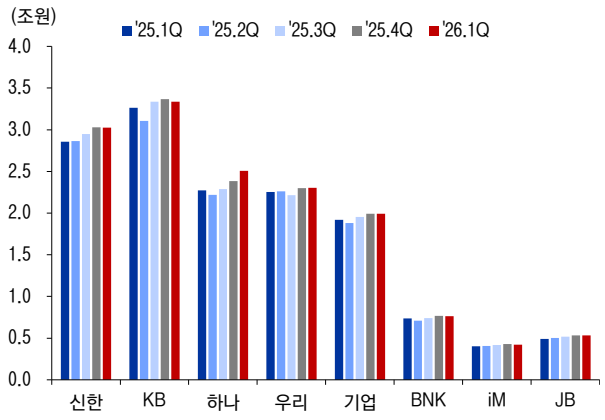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6 년 연초 이후 기업/지방은행 외국인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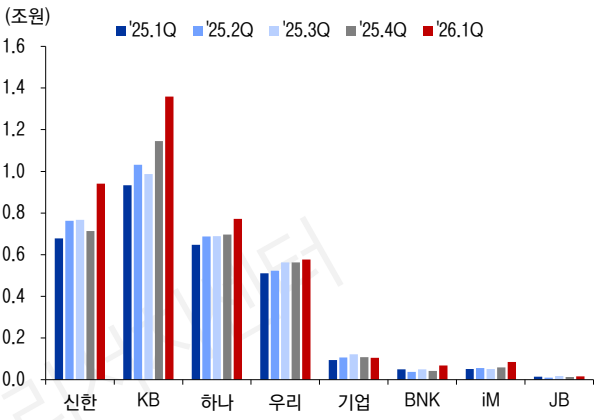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은행지주별 이자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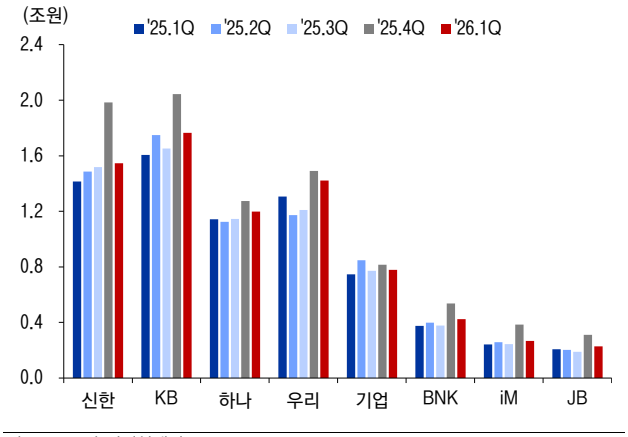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은행지주별 수수료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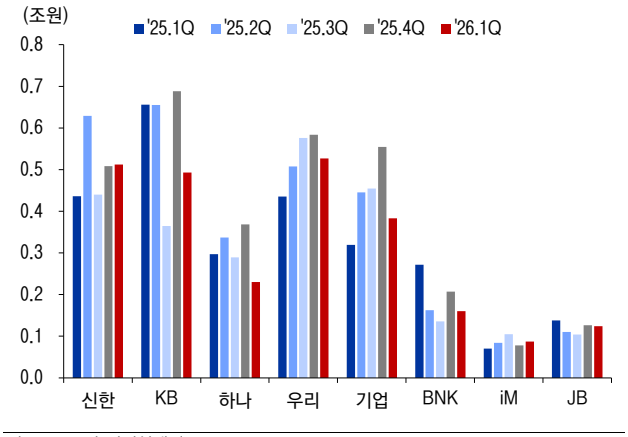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은행지주별 판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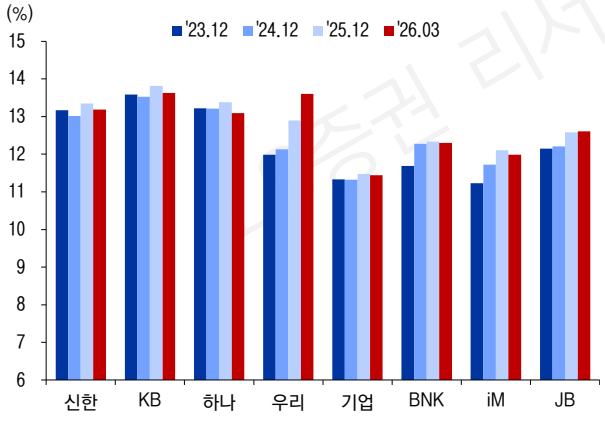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은행지주별 대손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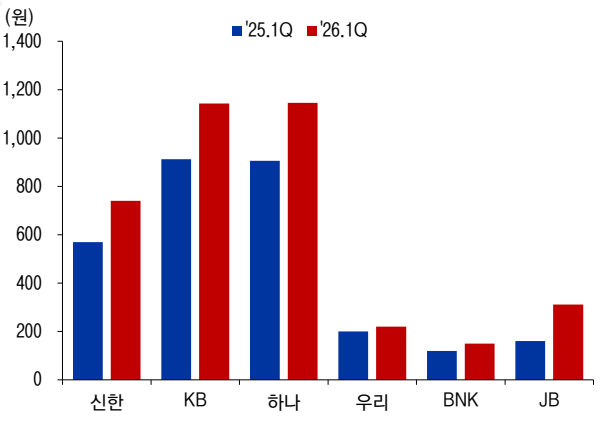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은행지주별 보통주자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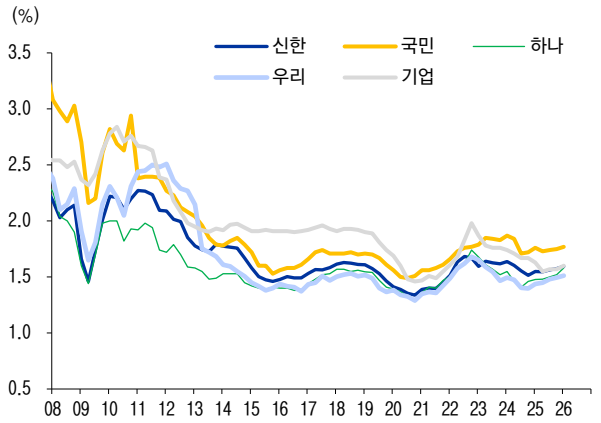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은행지주별 주당배당금(D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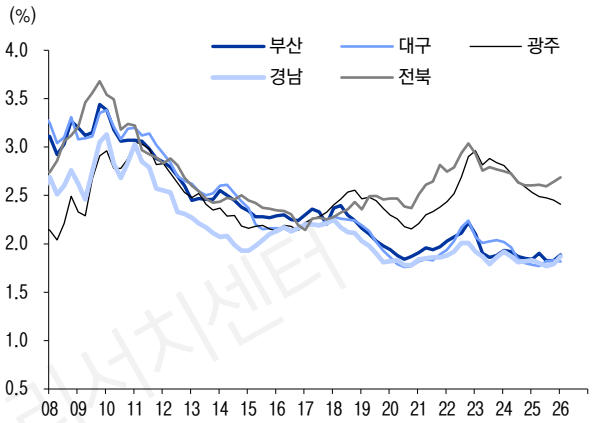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시중은행 N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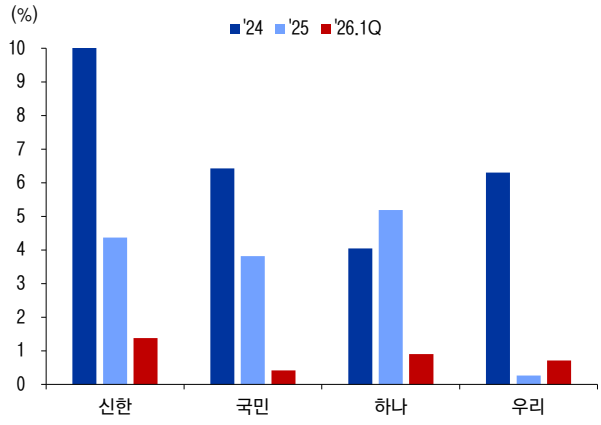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지방은행 N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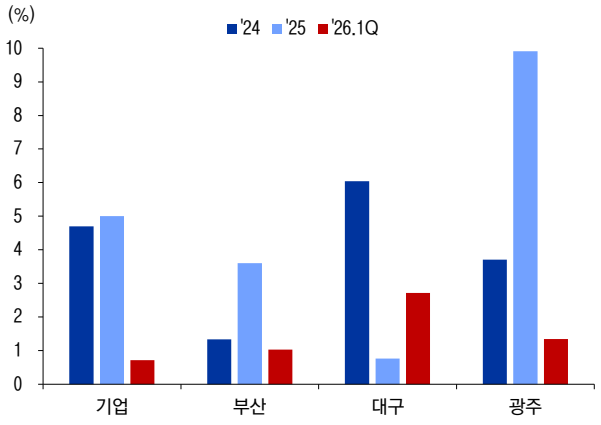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시중은행 대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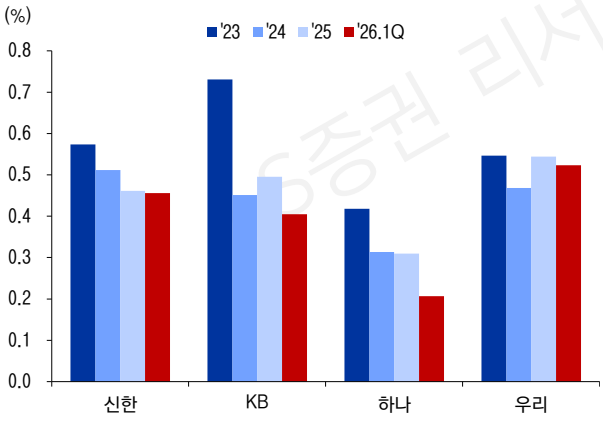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지방은행 대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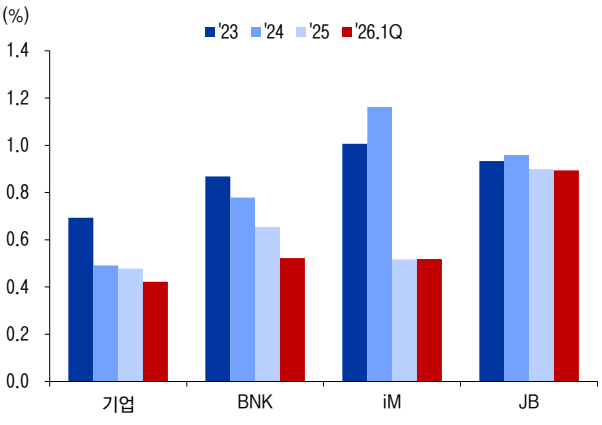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시중은행(지주) 대손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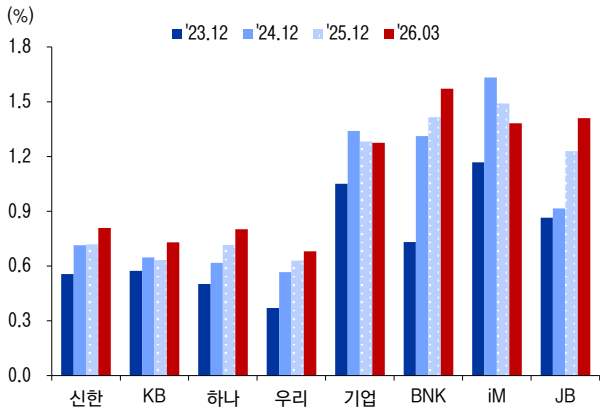
그림14 지방은행(지주) 대손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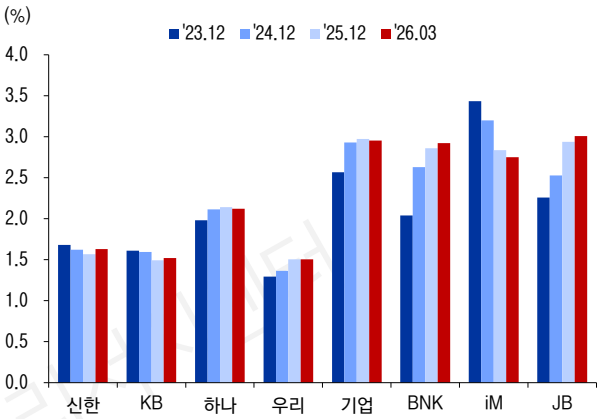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은행지주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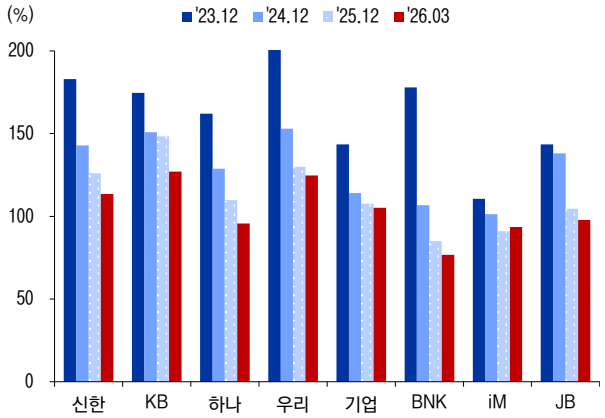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은행지주 요주의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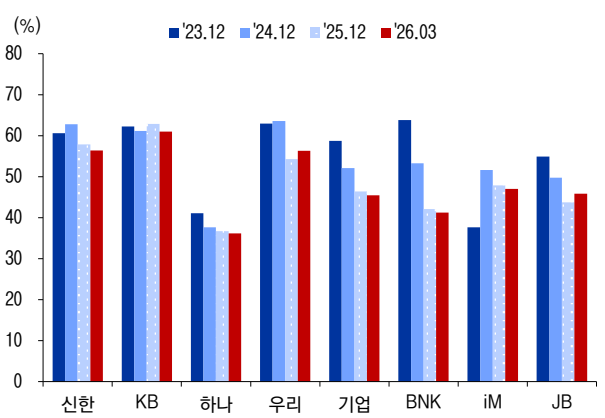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은행지주 고정이하여신대비 커버리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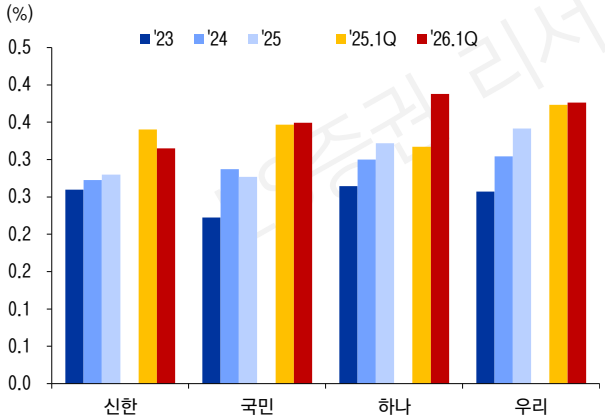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은행지주 요주의이하여신대비 커버리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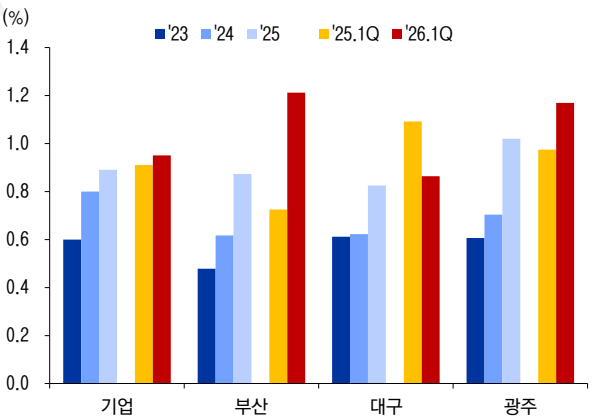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시중은행 연체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지방은행 연체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3% 11.7%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4. 01 ~ 2026.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